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 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 현대불교

법공양판 18~19 편

## ‘정혜결사’ 오늘로 잇는 삼학도량

### 내일의 아라한들 ③

젊은 화승 탐방 **승광사 강원**

보조도량의 전통을 이어 결사정신으로 정진하고 있는 승광사 불교전문강원. 이곳을 학인스님들 스스로 삼학도량(三學道場)이라 부른다. 정혜결사의 전통을 잇는다는 뜻과 함께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뜻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법성포(法性寮)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강주인 지운스님을 비롯 사십 사교 대교과와 학인대표 6명이 참석해 좌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불교전문강원의 위상과 역할’ 전문강원의 전통 중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개선하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두고 2시간이 넘

다. 운물을 던지는 수행정진에 철두철미하게 몰두하고자 한다.

35명의 학인스님들은 새벽 3시에 기상해 도량석과 예불을 마치고 4시30분부터 간경 또는 각반별로 논강을 한다. 6시 아침공양까지는 각자 금강경을 독송한다. 7시 상강례 전까지는 도량일을 돌보는 합동용역시간이다. 상강례는 강원인의 독특한 것으로, 경을 삼장승 공부하겠다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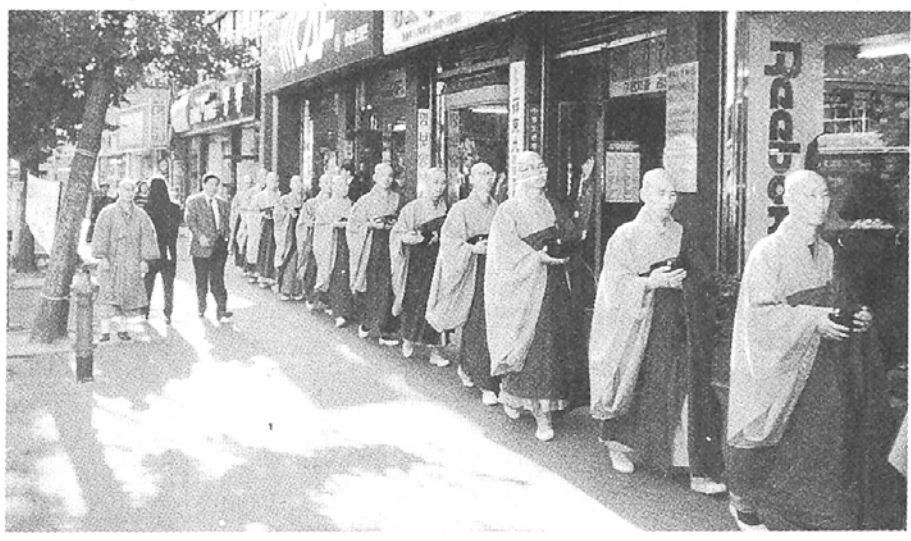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본강이며, 점심공양까지 간경과 독경을 한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의 은사스님 시범을

다. 행사부터 대교과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전통이력과목과 보살과목 보조법어 그리고 불교사 등 40여 과목을 해야 한다. 또 사원건축 불교미술 등 특강과 어학과목이라도 강사는 반드시 스님이어야 한다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음도 배울 수 없는 특징이다. 아집이 아니라 승가의 존엄의 표현이다.

#### ‘회광반조’ 지침 삼아

경전공부는 철저하게 문답과 논쟁법으로 이뤄진다. 강사스님이 그날 배울 부분의 대강을 설명하고 학인들에게 일일이 되묻는다. 강의 중 문제가 있으면 서슴치 않고 질문한다.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겨야하기 때문이다. 지운스님은 이 방법을 ‘절집 교유의 것’이라며 ‘법법의 지혜를 체득코자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대교과의 진경스님은 ‘글도 잘 새기지



◇ 강원은 곧 수행도량이다. 승광사 강원에서는 해마다 승속이 돌이 이념을 일깨우기 위해 시내로 탁발을 나서기도 한다.

## 40여과목 탐구 철저...16국사 배출 자랑

도록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좌담이 무르익는 가운데 학인스님들의 얘기가 추려졌다. 수백년 이어온 전통 속에 예불 원전강독 간경 논강 승의 율령 등 해행일치(解行一致)를 지향하는 정진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강원에는 강사진의 부족 시설의 낙후 등 변화되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들며, 이후에는 다시 간경과 독경으로 이어진다. 5시30분 공양시간 전까지는 사미 사십 사교 대교과 등 학제별로 공부한다. 다시 저녁예불과 특별활동 좌선(9시)까지 계속된다.

학인스님들의 정진시간표는 저녁 9시에 마치지만 도서관은 예외다. 사중에서 유일하게 밤늦도록 불빛을 볼 수 있는 곳이 강원 도서관이며, 그 불빛을 밝힌 스님들이 강원 학인들이다.

이곳은 다른 강원과 달리 몇가지 특색이 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강원 의례 과목에 보살과목과 보조법어가 추가돼 있다. 어떤 강원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다. 철저한 수행인의 자세가 없는 배려가 내기 어려운 언제부터인가 스님들 사이에서는 ‘승광사는 공부하는 곳’으로 통한다.

못하는 나에게 능엄경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강사스님과 도반스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능엄경은 지금까지 내가 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지운스님은 이와함께 강원은 교육기관 이라기보다는 수행도량임을 강조한다. 불교는 법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 논리의 교육이라는 말로는 법법의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승가의 생사해탈을 향한 일체의 직위적 행위는 교육보다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본의에 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정식명칭은 승가대학이 아니다. ‘승광사 불교전문강원’이다.

‘무릇 부처와 조사님들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의우고 익히는 사람은 불법을 만나

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제 지혜로써 이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여야 하니 그것은 스스로 부처의 마음을 닦고 부처의 도를 이루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권수정혜철사문 중)

고려시대와 조선조를 통해 16국사를 배출해 승보종찰로 불리는 승광사에는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가르침이 오늘날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한편 사중에서는 지금 강원으로 쓰고 있는 법성포를 해체해 증축할 예정이다. 학인들이 계속 늘어나 법성포로는 좁기 때문이다.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율해안에 공사를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승광사=정성운 기자)

### 역대 강주 .....

#### 석전·운성스님 맥 이어

16국사를 배출한 전통이 말해주듯 승광사에는 1930년대까지도 금강 임석전스님 등의 출중한 강백들이 이곳에서 학인들을 지도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의 소용돌이와 대웅전이 전소된 6·25의 전화를 입어 강원은 물론 대중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해지기도 했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운성스님의 인력이 컸다. 백운스님을 강주로 초대에 명맥이 끊겼던 강원을 다시 열었다. 정식으로 강원을 개설한 이 때가 1982년. 물론 구산스님이 조계총림을 개설한 후 인산스님의 강의로 75년 강원을 열었으나 시미과 수해에 그치고 말았다.



◇ 석전 스님 ◇ 운성 스님

백운스님의 뒤를 이어 종전스님 운성스님이 강주를 맡았으며, 근대 불교교육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전스님(박한영)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운성스님이 정식으로 강원을 개설한 이 때가 1982년. 물론 구산스님이 조계총림을 개설한 후 인산스님의 강의로 75년 강원을 열었으나 시미과 수해에 그치고 말았다.

#### 빈틈없는 수행 일과표

이날 좌담을 준비한 <해당당(海堂堂)> 편집실의 한 학인스님은 “21세기가 6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속사회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미래사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불빛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떠난 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때, 한국불교의 개혁 또한 수행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라는 말로 좌담회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수행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넉넉히 전해주는 말이다.

여는 강원이나 그러하듯, 승광사 불교전문강원의 하루일과도 새벽 3시에 기상해 저녁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간경과 예불 논강으로 힘없이 이어진다. 그런만큼 속인의 출입이 어려운 곳이 강원이다. 외부인의 출입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것도 대중공사를 통하거나 학인대표(입승)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철칙이다. 외부인을 멀리하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



◇ 불교전문강원으로 쓰이고 있는 ‘법성포’는 곧 해체, 증축될 계획이다.

#### 인터뷰

##### 강주 지운스님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입니다.” 지운스님은 강원을 승가대학이 아닌 성불위해 일념정진

학 또는 교육기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불교에는 애초에 교육이라는 말이 없었음을 밝히고, 교육이라는 타율적이고 피동적인 개념에 불교수행의 자율적 차원을 가위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불교집안에서의 교육의 최종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지어가는 일체의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타율적

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성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운스님은 또 강원을 승가대학이라 지칭하러, 교육이라는 타율적이고 피동적인 개념에 불교수행의 자율적 차원을 가위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불교집안에서의 교육의 최종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지어가는 일체의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타율적

기본교육기관으로 규정할 현재의 중간 교육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강원은 수행도량이며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승광사 불교전문강원이 나아갈 방향도 철저한 수행을 통한 생사해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운스님은 수행의 길은 계율준수에 있음을 강조했다. “계(戒)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망상심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계하나만을 지켜도 정(定)과 혜(慧)가 같이 따르는 삼학통진(三學通進)이 되는 것입니다.”

## 불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 세상! 축

### 부처님 오신날 행사 종결표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불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진행부서
법	1. 법요식	조계사 대웅전	5/7 10시	불교총연합회
	2. 세계의 민족이 하나되는 불축 기원 대법회	여의도 광장	4/29 16~20시	"
	3. 제등행렬	여의도 광장-조계사	4/29 17.30분 출발	"
의	1. 시정일 평화의 탑 점등식	시정일 광장	4/27 19.30분	"
	2. 원각사지 탐방	탐방공원	5/3 19.30분	"
	3.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동대 중강당	5/14 14~18시	청소년 교회연합회
	4. 광복50주년 민족통일 천수천안과문물공예 공연	세종문화회관(대강당)	4/8 19시	산문사합창단
	5. 청소년 음악회	파리공원	5/13 19시	목동청소년회관
	6. 어린이 연일장	목동청소년회관	5/14 10시	"
속	7. 서울 인형제 (국제인형축제)		5/26~28 14~16시	"
	8. 지리철학 불축동 광하기	지리철학 각역구내	4/24~5/13	불교총연합회
	9. 불교 웅변대회	조계사 대웅전	4/30 14시	불교총연합회
	10. 아동극 공연	목동청소년회관	4/21~5/7(1일3회)	목동청소년회관
	11. 불교음악의 밤	국립극장소극장	4/26 19.30분	누메르무노
	12. 시 낭송회	조계사문화회관	4/22 17시	현대불교문화회
	13. 불교미술제(불교미술 재조명)	프레스센터	4/25 14시	문화사회부
	14. (불축 세미나) 21C 인류문명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21C 인류문명의 전망 -21C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조계사 문화회관	4/21 14~18시	불교총연합회
	15. '부처님 오신 날' 학술 세미나 -불교신학, 그 문제점과 방향	동국대학교 동국관	5/4(목) 13.30분~17시	동국대학교연구원
	16. 고승추정 도덕성회복에 대한 법회	조계사 대웅전	4/23 11시	불교총연합회
17. 만동(萬動) 만화(萬花) 공양법회	MBC문화체육관	4/22 15시	연화불리위원회	
18. 연꽃 노래 잔치	동대 중강당	예선 4/2 13시 본선 4/30 13시	서울불교청년회	
사	19. 자비의 묵탁 달아주기(운전 무사고 기원)	강원도 강릉역 마포 청기의 예식장 금촌 회전당	5/1 9시 5/6 9시 5/6 9시	시다불교신문사
	20. 아동극 '단군 할아버지'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5/13 15~17시 5/14 11~14시	극단 풍족나라
	21. 전통 불교의식 옹구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4/25~5/17 9시~17시	동국대학교 불교사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진행부서
자	1. 일선장병위문	전후방부대	4/15~5/20(기간)	선교사팀
	2. 일선장병 위문	중부전선 O O 부대	4/21 15시	불교총연합회
	3.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급	청소년회관 교육실	4/29 18~19시	목동청소년회관
	4. 장애인 자선 큰 잔치	조계사	4/22 15시	불교총연합회
	5. 노인재사회 위문 잔치			연예인 복지회(송춘희)
	6. 외국어 노동자 법회	조계사	5/5 11~14시	불교총연합회 문화사회부
	7. 불우이웃돕기		4/15~5/20(기간)	불교총연합회 문화사회부
	8. 서울 구치소 재소자 수계법회	서울구치소	4/28 11시	산문사
	9. 무지대회	탐방공원	5/3	불교총연합회교육팀
	10. 경로위안 잔치	도선사 경내	4/20 10~15시	도선사
	11. 교도소 위문 및 수계식	안양교도소	4/26 14시	도선사
	12. 미화원 위문 법회	노원구민회관	4/28 13시	노원불교연합회
	13. 전방 OP경회의 등 점등	백암 OP	4/25 18시	단법사단
순	아산OP	4/24 18시	"	
	음지전망대	4/25 18시	"	
	백석OP	4/25 18시	"	
	종일전망대	4/28 18시	"	
	도리OP	4/25 18시	"	
	비룡OP	4/20 18시	"	
	계룡OP	4/26 18시	"	
	팔공OP	4/18 18시	"	
	팔공산OP	4/25 18시	"	
	영각OP	4/20 18시	"	
길	태릉전망대	4/21 18시	"	
	대기봉	4/14 18시	"	
	제적봉(7680P)	4/20 18시	"	

불기 2539년 4월 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송 월 주**

「부처님 오신날」 불축 위원장